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RI-VALLEY

주임신부: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남석훈 니콜라오 408-571-8785
총구역장: 조재우 요 셉 408-966-5496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4년 6월 2일 / 제640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미정 제1독서 함용기 제2독서 함소연 / 입당 169(1-2) 봉헌 212, 512 성체 156, 152 파견 169(3-4)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Chris Sigua 2nd Reader Teddy Lee

입당송 | 시편 81(80),17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창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 탈출 24,3-8

화답송 | 시편 116(114-115),12-13.15와 16ㄷㄹ.17-18(㉔ 13)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 히브 9,11-15

부속가 | <성체송가 21-24>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환호송 |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 마르 14,12-16.22-26

영성체송 | 요한 6,5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6월 02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06월 09일	주일학교 NO	Fr. Jim
06월 16일	주일학교 NO	Fr. Bong
06월 23일	주일학교 NO	Fr. Peter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마르 14,24)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온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시는 사랑의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은 유일하게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25절)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신적 생명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본성(natura)안에 이미 포도주가 상징하는 친교와 잔치의 충만하고 풍요로운 생명력이 분출(processio)하고 있음을 계시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날도 또 영원히 같은 분”(히브 13,8)이시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人性)으로 즉 당신의 육신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에 최후의 만찬 중에 하신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라는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국 성경에서는 ‘야소’(耶穌)입니다. 한문의 문외한인 제가 읽더라도 ‘야’(耶)는 무릎을 꿇고 절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며, ‘소’(穌)는 물고기(魚)와 밭(禾)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온 존재와 본질, 그분의 전 생애가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을 다 바치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시는 성체요 성혈이심을 알려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장발장’ 이야기는 빅토르 위고의 대하소설 《레 미제라블》에 나옵니다. 장발장은 청년 시절 7남매를 홀로 키우는 누님을 도와주며 살

다가, 배고파 우는 조카들을 위하여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복역하며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고 흉포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개과천선하여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시장이 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죄인으로 처벌하려는 냉혹한 자베르 경감에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기까지 하였을까요?

이는 이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가 막 출옥한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은식기와 은촛대를 꺼놓고 저녁 식사를 베풀어 주었는데 장발장이 이것들을 훔쳐 달아나다가 헌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은수저를 내가 장발장에게 주었다고... 은촛대까지도 다 주었는데 왜 안 가져갔소!”라는 환대에서 비롯합니다!

이 저녁 식사와 은촛대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장발장, 나의 형제여, 당신은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하는 사람ियो. 나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값을 치렀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앗았던 생각과 영벌의 정신에서 끌어내 천주께 바친 거요.” 이 호소는 지금도 매일의 성찬례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24)라는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	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제질과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	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	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	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	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 끝에 삶의 힘겨운 고개를 넘고 나서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 보지만, 여전히 또 다른 삶의 힘겨움이 눈앞에 마주하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체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란 한낱 스쳐 가는 바람이며, 한 줌의 먼지와도 같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날의 부족함에 대해 가슴을 치며 뉘우칠 수 있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손(Kyrie eleison)으로 표현되는 이 자비송은 눈이 멀었던 바르티메오의 외침인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7)와 연관된 것으로 원래는 동방 교회에서부터 행해지다가 5세기경 순례자들에 의해 로마 교회에 유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비송은 찬미와 참회를 위한 간청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로, ‘주님’(Kyrie)이라는 호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찬

미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자비를 베푸소서’(eleison)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간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비에 대한 간청은 다른 말로 ‘하느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에 대한 희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또 어떤 처지에 있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리고 비록 신앙인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죄 많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저에게도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요?’ 이렇게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주님의 자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	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	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 
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	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	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



■ 6월 주요 전례 일정

- 6월 2일(주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성혈 대축일
- 6월 8일(토): 꼬미시움 आयुही
- 6월 16일(주일): 수녀님 송별 미사
- 6월 18일(화), 20일(목), 21일(금): 평일 미사 없음
(본당 신부 휴가)

■ 공용 가톨릭 성가책 사용 안내

- 익명의 교우분께서 본당 전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톨릭 성가"(수정보완판) 책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6월부터 교중미사 전 성당 입구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미사 중에 자유롭게 활용하시고 미사 후에는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 봉헌해 주신 익명의 교우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사랑의 모후 꾸리아 6월 월례 모임

- 일시·장소: 6월 9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12시, Room A

■ 권영랑 마리크리스티나 수녀님 송별 미사

- 일시·장소: 6월 16일(주일), 오전 9시 30분 - 대성당
- 마리크리티나 수녀님께서 5년간의 북가주 가톨릭성서모임 소임을 마치고 새로운 소임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조세핀 수녀님은 남가주로 자리를 옮겨 가톨릭성서모임 소임과 신학대학원 공부를 병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공동체에 보내주신 수녀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수녀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 교리교사 및 봉사자 모집

- 2024-2025학년도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할 교리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성인 신자
(한국어·영어 무관)
-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자녀들 신앙 교육에 힘이 됩니다. 관심과 지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925-394-4283)

■ 축구 기어 드라이브 행사

- 저소득층과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이스트 베이 난민 캠프(CRECE)에서 진행중인 무료 축구 프로그램(Better Together Soccer)에 사용될 축구용품들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 품목: 새것이나 새것같이 깨끗하게 이용한 각종 축구용품
- 기간: 6월 2일(주일)까지
- 장소: 성당 로비(비치된 바구니 활용)

■ 2024 Christus North Retreat

- 일시: 6월 28일(금) - 30일(주일)
-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전예운 마리조세핀 수녀님과 전지윤 신부님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피정입니다. 우리 본당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https://www.christusretreat.org/>

■ Camp Creation 2024: Korean-American Catholic High School Summer Camp Registration is now open!!

- 대상: Incoming 9th - Graduating 12th Grade Students
- 날짜: July 26-28, 2024
- 장소: YMCA Camp Campbell
- 신청: <https://tinyurl.com/2024HSSummerCamp>
- 신청비: \$250 per student
- 신청 마감: July 7, 2024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925-394-4283)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638	\$441	\$3240	\$170	\$170	\$5659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계상진(5), 남선숙(3,4), 박소현(3,4), 박주암(5), 배예자(5), 석근수(4-6), 성호승(5,6), 송형철(5), 윤혜숙(5), 이에진(4,5), 정병섭(4-6), 조원정(5), 이태원(5), 장두만(5,6), 최두은(4,5), 하창완(5)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석근수(4-6), 성호승(5,6), 정병섭(4-6), 조원정(5), 이태원(5), 하창완(5)

- Bishop's Appeal

석근수(4-6), 성호승(5,6), 정병섭(4-6), 조원정(5), 이태원(5), 하창완(5)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조국을 떠나는 이주민들

전쟁이나 기아를 피하여 위험과 폭력이 난무하는 여정에 내몰린 이주민들이 도착 국가에서 환대받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기도합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